

연 건평 681평의 최신형 청사로 증축

건협 광주·전남지부, 지난 3월 21일 준공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가 청사 증축을 마치고 지난 3월 21일에 준공식을 가졌다.

1965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 기생충 퇴치와 성인병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광주·전남지부는, '75년 현재의 자리에 연 건평 176평의 청사를 건립했으며, 이후 검사 수요가 늘어나고 성인병 검진에 필요한 새로운 기자재 도입 등으로 건물이 협소해지자 '85년, '88년 두 차례에 걸쳐 건물을 증축한 바 있다.

설립 이래 세번째로 실시하게 된 이번 증·개축을 통해 광주·전남지부는 378평의 대지에 8억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증축 전 280여평의 건물에 400여평

을 증축, 연건평 681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된 최신 건물을 자랑하게 되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의 새 건물에는 안내 및 접수실, 방사선실 등을 비롯한 각종 검사실이 내원자의 편의를 위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새롭게 선보일 건강증진실과 대 국민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홍보관도 자리를 잡고 있어, 이제 명실상부한 건강검사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으며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최고의 요람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3월 21일의 준공식에는 건협 임한중 회장, 이순형 부회장(서울의대 학장) 정선식 전남의대 학장, 성정용 사무총장, 김재웅 전라남도 보사환경국장, 서정근 농협광주·전남본부장, 김두원 대한나관리협회 광주·전남도지부장, 임종호 광주광역시 의사회장, 김이석 의료보협관리공단 광주광역시 지부장, 전영복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송병태 광주광역시 보사국장, 천희철 서구의회회장 등을 비롯해 건협 본지부 부장·사무국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건협 광주·전남지부의 증·개축 청사 준공을 축하해 주었다.

국교생 대상 “금연” 글짓기 현상 모집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사는 국민학교 2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글짓기 현상모집을 보건복지부 후원을 얻어 공동 개최했다.

오는 5월 31일 금연의 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과 금연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알

게 하고 사회적으로 조기 금연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글짓기 작품 현상모집은 오는 4월 20일까지 소년한국일보사에 접수된 작품 중에서 70명을 뽑아 금연의 날 행사 때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다. 자세한 내용과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작품내용 : 흡연에 대해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
2. 길 이 : 200자 원고지 7장 안팎
3. 참가자격 : 국교 2~6학년 어린이
4. 접수기간 : 1995. 3. 20~4. 20
5. 입상자 발표 : 1995. 5. 12~20(소년한국일보)
6. 참 가 비 : 없음
7. 보낼 곳 :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 소년한국일보 사업부(110-792)
(겉봉에 “금연 글짓기 작품”임을 명시)
8. 시상내용 : 대상 2명(상패·장학금), 금상 4명(상장·부상), 은상 8명(상장·부상), 동상 16명(상장·부상), 장려상 40명(상장·부상)
9. 문 의 처 : (02)724-2407~9

건협 광주·전남지부 김형태씨 박사학위 취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의 관리의사 김형태씨가 지난 2월 24일,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씨는 “땡 송과체의 전자 현미경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해 이번 학위를 받은 것이다.

KOICA, 중국 기생충사업 지원

처음으로 해외 의료 지원 사업에 큰 의의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총재 : 정주년)이 중국 기생충관리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95년도에 지원금 5천 2백만원 을 확정지었다.

이번 사업은 KOICA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국의 기생충 퇴치사업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민간차원의 대외원조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동안 KOICA가 국내 20여개 단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이 중 사업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지속성이 높은 1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확정지어진 것이다.

특히 이번의 지원사업은 KOICA가 처음으로 해외의료사업을 지원했다는 데 큰 의의를 주고 있다.

KOICA가 올해 중국 예방의학 과학원

에 지원하게 될 지원금은 KOICA의 2천만원과 건협(建協)의 3천 2백만원 등 총 5천 2백만원이다. 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지원하게 될 이번 사업에서는 또, 앞으로 5년간 중국 5개 지역의 학술연구가와 보건관리자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건협에서는 또 전문가 10명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기생충관리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전수키로 했다.

이번의 지원사업은 '60~'7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등으로부터 불적·기술적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기생충관리사업을 수행하여 오늘의 건협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보건관리,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 증례 보고(II)” 내사

대전·충남지부의원 강군옥 원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의 강군옥 원장이 '94년 한해 동안 지부 의원에서 실시한 자궁암 세포검사의 결과를 “자궁경부암 증례 보고(II)”로 작성하여 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4년 대전·충남지부에서 자궁 경부암 검진을 받은 2,171명중 CLASS III 이상으로 판정된

것은 30례(1.4%)였으며, 그중 CIN III는 17례(0.8%)였다.

한편 이들은 모두 초진이었으며, 발견하기 전에 증상이 전혀 없었고, 때문에 조직검사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강군옥 원장은 정기검진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건단체 합동 건강계몽 캠페인 전개

4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4개 보건단체가 합동 건강계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있을 이 행사에서는 건협이 건강검진과 상담을, 가협이 모자보건 및 청소년 성 상담을, 결협이 결핵검진 및 상담을, 그리고 적십자사가

헌혈운동 전개와 헌혈 홍보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지난 해에 처음 실시되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어 올해 다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4개 단체장, 인기 텔런트 등이 참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계몽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공개강좌, 무료검사 등 행사계획

건협, 4월 보건의 달 맞아 건강관리 강조주간 행사 등 전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4월 보건의 달을 맞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계획·전개하기로 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매월 2회 실시하던 공개강좌를 4월에는 5회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며 제주, 부산, 인천(6일), 대전·충남, 경북(14일), 전북(21일), 경기, 대구(27일), 경남(28일) 지부 등도 공개강좌를 특별 기획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3째주(4. 17~22)를 “건강관리 강조주간”으로 설정하고 가두 무료 건강 상담소를 전국

의 총 24개 주요 지역에 설치하여 8천여 명의 수민에게 무료 검사와 상담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협은 또 사회복지 시설 10여곳의 수용자 1,500여명과 소외 계층에 대한 이동 무료검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그외에도 건협은 국민학생 대상의 금연 글짓기 작품 현상 공모, 건강계몽 캠페인 전개, 이동 보건교육 실시, 보건교육용 유인물 제작·배부 등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언론매체 통한 보건교육 강화



▲ 하성미 부산지부 사무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와 대전·충남지부가 언론매체를 통한 보건계몽에 적극 나서 국민 보건 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협 부산지부의 경우, 지난 3월 10일 KBS-1TV 부산패트를 정보수첩 코너에

부산지부, 대전·충남지부 등 활발히 전개

하성미 사무국장이 출연해 종합검진도 의료보험 숫자로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

또 대전·충남지부의 김치수 국장과 강군옥 원장은 지난 2월 10일 MBC-TV의 “아침만들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성암이 늘고 있다”는 주제로 건협 대전·충남지부의 자궁암 조기 발견 사례에 대한 방송을 실시해 질병은 조기발견과 치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체, 특히 TV를 통한 건협 지부의 보건교육 활동은,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의 필요성을 계몽할 수 있다는 데서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乙亥
仁山姜君奎

感謝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에 보답하려는
마음은
나아가서 나와 우리들의 주변을
아름답고 슬기롭게 만듭니다.

이 글씨는 건협 대전·충남지부 강군옥
원장이 건강소식 독자들께 드리는 글입니다.